

# 기업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한뫼'

### 익산시, 기업·지역대학·직업훈련 전문기관 등 14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익산시가 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선다. 시는 기업, 지역대학, 직업훈련 전문기관 등과 손잡고 기업수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원광보건대학교 이건중 기획조정처장,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이창열 학장, 익산상공회의소 이윤근 사무국장, 기업단체(5개 기관) 및 직업훈련 전문기관(4개 기관) 대표 등 총 14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수요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원광대학교 박성태 총장, 원광보건대학교 이건중 기획조정처장,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이창열 학장, 익산상공회의소 이윤근 사무국장, 기업단체(5개 기관) 및 직업훈련 전문기관(4개 기관) 대표 등 총 14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수요형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확한 산업인력 교육수요 정보 제공과 기업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업인력양성 수요생의 관내 기업 취업을 주요 협력사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예산지원 등 산업인력 양성 운영체계 총괄 △기업단체는 회원사의 정확한 교육수요 및 채용의사 파악 △지역대학 및 직업교육기관은 기업수요형 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발굴·개발하는 등 현장의 산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정 시장이 지난 4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 맞춤형 일자리공급 기본구상 이후 5월 말 산업인력양성팀 신설, 6월 기업단체

수요조사 및 교육단체 인력양성과정 협의 등을 거쳐 기관간 협약을 작성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탄탄한 준비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2024년 산업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산업인력양성 단기과정 시범 운영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및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인력양성 전문용역을 통해 익산시 산업에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방안, 미래유망산업 양성체계 구축, 지역산업특성 분석 및 기업지원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

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그간 추진해온 구지자 중심의 일자리정책은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여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인력을 적체적으로 공급하는 등 기업수요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과 별개로 각 기관별 분산되어 있는 일자리센터를 통합한 일자리정보 통합 운영체계 구축도 8월중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농업기계박람회 성공 개최 '총력'

### 익산시-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합의각서 체결



익산시는 13일 정현을 시장과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농기협)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농업기계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이번 MOA는 익산시의 농기협이 국

내 농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기계박람회를 공동 개최함에 따라 체결된 합의각서로 △행사 개최 역할분담 △예산 조정 및 운영 △박람회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합의각서에 따라 시와 농기협은 익산농업기계박람회를 매 홀수년도 하반기(10~11월)에 개최하게 된다. 올해 박람회는 익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번영로 1길 20)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열릴 예정이다. 익산시와 농업기계박람회의 인연은 지난 2001년 10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2006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등 총 6회에 걸쳐 열린 바 있다. 이후 2015년부터 감제사에서 개최되었다가 올해 시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다시금 익산시에 보금자리를 옮겨 오는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13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 다목적실에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빅데이터 네트워크 강화 '맞손'

### 군산시-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가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위해 업무협약을 실시했다. 시는 13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과 혁신성장을 위해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 다목적실에서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호남권연구센터와 함께 이뤄졌으며,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의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등 신기술 관련 정보 교류, 지역 내 신성장 사업 발굴 및 참여, 민간·학계와의 교류 협력 등이다. 시는 그동안 국민신문고 및 120생활민원 분석,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분석, 돌봄센터 입지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 (주)KB국민카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가방 데이터플랫폼을 업무에 이용하는 등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공공데이터의 발굴 및 개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기획·수립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 빅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는 빅데이터에 대해 지역 내 민·관·학 상호 간 데이터 관련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전라북도, 전주시, 원광대학교, 전북ICT융합발전포럼 등 5개 기관을 주축으로 23개 기관이 참여 중으로 지난 2020년 2월 발족했으며, 매월 세미나 개최 등 정례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글로벌페스티벌' 개최

오는 15일 은파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2023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글로벌페스티벌' 축제가 열린다. 여성가족부,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글로벌페스티벌' 축제는 관내 청소년 및 시민 800명 정도 참석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감수성 및 재능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존, 워터존, 문화존 3가지 테마로 열리는 청소년문화행사다. 청소년들의 역량 함양을 위해 지역의 유관 단체와 연계해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개인, 단체)가 참여,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체험 부스 및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청소년 어울림마당 체험

부스에는 군산시청소년문화센터가 참여해 배란일, 가뭄기간, 생리 예정일 등 구슬로 꿰어 팔찌를 만들어 배란주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하는 부스 등, 평소 체험하기 힘든 신기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워터존을 신설해 워터슬라이드, 워터풀, 워터분수 등 올해 처음 기획된 체험부스가 진행된다. 시는 안전한 축제를 위해 사전에 체험부스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다양한 놀거리와 먹거리 부스, 팔빔수 만들기 등 같은 활동도 마련되어 있어 청소년뿐만 아니라 행사를 관람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익산시, 7월 정기본 재산세 222억원 부과

익산시는 7월 정기본 재산세 12만5천건, 22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10억원(4.5%)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 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시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1주택자 특례세율(0.05% 세율인하) 적용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이용납부, 지방세입계좌 및 농협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군산시는 8월 중하순 코스모스 졸업하는 학생들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2023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3. 7. 7.) 기준 군산시에 주소를 둔 재(후)학생으로, 지원금액은 한 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2023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8월 7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 또는 교육지원과에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재(후)학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학생의 대출금 이자액을 확인해 오는 11월 중 한국장학재단 측에서 학자금 대출계좌로 지원금액을 상환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